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

(『긴긴밤』을 읽고)

황주연

엄마와 내가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라는 말로 입을 다무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더 속상해하신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많이 고민하고 나와 엄마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물론 엄마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만 말이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힘든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다. 엄마의 걱정은 알지만 그래도 해 보고 싶은 것은 꼭 해 봐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기심 폭탄 11살인데.

『긴긴밤』을 읽으면서 노든과 나의 공통점을 찾았다. 바로 궁금한 것들이 많은 눈이다. 코끼리 유치원에 남을 것인지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에 노든이 들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이 말을 듣고 노든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바람보다 빨리 달리기

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했다.

물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웠다. 아내와 딸을 잃고 충에 맞고 친구도 빼앗겼다. 악몽에 시달려 밤이 길어졌다. 그러나 긴긴밤이 되었더라도 노든은 결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노든은 노든만의 초원 바다를 찾았고 펭귄은 펭귄만의 검푸른 바다를 찾았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긴긴밤을 지나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노든이 했던 말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른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 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런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엄마가 걱정하는 긴긴밤이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바다를 찾은 노든처럼 나도 나의 푸른 바다를 찾고 싶다.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나만의 푸른 바다. 아직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용기를 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나에게도 노든처럼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생기겠지.